

기업체에서 실업계 출신 여사무원을 채용할 때 학업성적이나 '얼굴'보다 외모를 더 중시하고 있어 일선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비공유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풍조는 수년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253년사이 각직장에 사무자

이로 인해 기업체에선 용모단정하고 여사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일선기업체고 교에 보내는 졸업생추천의뢰서에 '신장 1백60cm 이상' 등의 외모 자격기준을 아예 명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직접 찾아가 대상 학생들을 일일이 「점고」(點考)하기까지 해 교사들로부터 『미인선발대회』를 하는 거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때만 취업에 실패하는 유가 작은 키와 풍성한 몸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차량보다 성정은 뒤떨어지지 만 키가 크고 몸매가 늘씬한 졸업생들이 이미 대부분 취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학교 취업특임 黃奎浦 교사(37)는 『해마다 차량처럼 실력은 뛰어나나 외모가 뒤져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학생이 각 반마다 1, 2명씩 있다』고 말했다.

K산업개발이 최근 서울 D여고(2부)(산업학교과정)에 보낸 추천의뢰서에는 추천학생의 자격요건을 신장 1백58cm 이상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이 일선 학교에 찾아가 추천학생들을 면접하는 풍경도 요즘은 흔한 일이다.

번거롭게 추천필기시험면접의 절차를 거칠지 않아 대상학생을 직접 보고 단 한 번으로 채용결정을 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일선 실업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평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 못지 않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설득력이 없게 됐다』며 『앞으로 학과공부 보다는 용모가 꾸기에 더 힘쓰도록 교육방식을 바꾸어야 할 판』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 女社員 채용 “실력보다 외모”

동 9월 12. 24

## 사무自動化 따라 접대기능 중시 女高 찾아가 얼굴만보고 결정도

“美人선발대회나” 교사-학생 반발

동화가 정착되면서 주산 부기 타자 등 과거 여직원들이 맡았던 사무기능들이 대부분 컴퓨터로 대체되고 대신 고계절대 등 단순 서비스업들이 중시되면서 더욱 심화됐다.

서울K여상 졸업반 차모 양(18)은 학교선정이 반에서 1, 2등(전교 3.59% 이내)이고 주산 부기 타자 부문에서 각각 2등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이제까지 3차례의 취직 시험에 모두 낙방 취업길의 막연한 입장이다.

차량자신을 물론 학교관계자들은 차량이 이처럼

클래식음악 전파지  
이땅의 음악